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영적승리의 비결

(약 4:5-12)

The Secret of Spiritual Victory

(James 4:5-12)

인류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어느 모퉁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전쟁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영적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영적 승리의 비결을 다음의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history of mankind is the history of war. Even now, the war is happening in any corner of the world. The war is horrible. That is why whenever we pray for our nation and its people, we want that there must not be the war again on the earth.

However, we have made the spiritual war that is more horrible and serious than the world war, every day. James the Apostle explains the secret of spiritual victory into two ways as follows.

1.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해 갑니다(요 10:10).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내버려 두면 우리의 인생이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그 어떤 여백도, 틈도, 기회도 주지 말고 오히려 공격하므로 대적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벧전 5:8-9).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매우 긴급한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2.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 4:8).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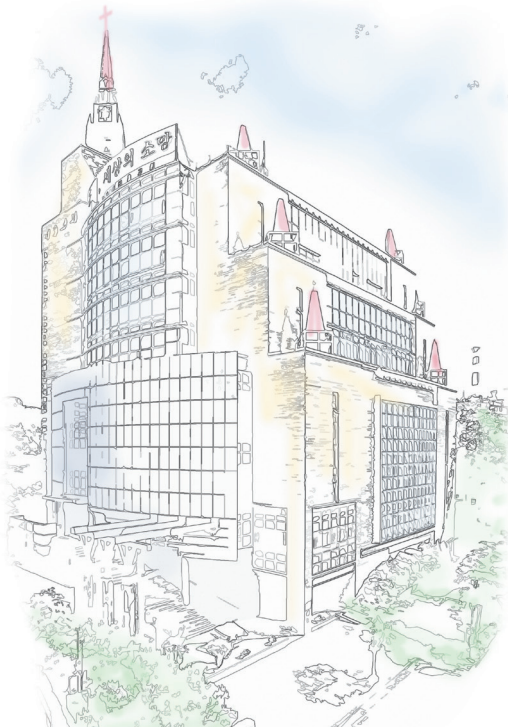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 삼는 것, 세상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야고보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 붙어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오직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는 사실상 영적전쟁의 승패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하여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과 승리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We must resist the devil

“Submit yourselves, then, to Go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James 4:7).

The devil comes only to steal our lives (John 10:10). Therefore, if we lay aside devil's attack, our life will be stolen by it. The devil's work is to take someone's life. Finally, it will ruin even our spirit. Thus, we never give any blank, crack, and chance. All the better, we must resist the devil by attacking.

“Be self-controlled and alert.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R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ith. Because you know that your brothers throughout the world are undergoing the same kind of sufferings” (1 Peter 5:8-9/).

Peter demands us to be self-controlled and alert with very urgent mind. He also says to fight the devil actively.

2. We must be near to God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James 4:8).

To come near to God means to pray. That means to love His word. Like that, when we are armed with the word and prayer, we can fully take a victory in the spiritual war. Whenever we come near to God, naturally, we can resist the devil.

Subsequently, James the Apostle says, “Don't you know that friendship with world is hatred to God?” That's why James says that our mind is divided between the two, friendship with the world and loving the world that are the enemies of God.

We must completely stick to our bridegroom, Jesus Christ. We only admire Him in our heart, love Him, and live our lives in Him. All of our pleasure and happiness must be in Jesus Christ.

My beloved Christians,

Every day, we are fighting a spiritual war. The victory and failure of our life will really be decided by the victory and failure of the spiritual war. That's why we must pray for taking a victory in the spiritual war. We must be humble, resist the devil, and be near to God. When we are near to God, He will give us the life, while, fully.

By taking a spiritual victory,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fully enjoy the life and pleasure inside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6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오리엔테이션: 8월 7일(주) 오후 4시, 본당
장학금 수여식: 8월 7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6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8월7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로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57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송암장학생 - 33명

안세인 김준서 하유진 한동민 조영제 서연우 노희균 양문열 송채원 배상은 장지윤 박경은 장재혁 김재욱 마건영 최현제 김현지 최의진 김영기 김진안 민희성 최희연 오소정 임주빈 김기남 양혜원 이충원 이혜진 김건희 김우형 한정윤 김나리 이근원

· 고등부 - 5명

김은초 정예빈 이우진 정지혜 장소영

· 디아스포라부 - 3명

김윤미 한대의 조영금

· 교역자, 선교사 자녀 - 11명

김지혜 우하은 김예림 이준행 우성은 조채린 조라혜 조라빈 이지행 이하경 김예나

· 호산나전문대학 - 5명

박원형 성동제 최연주 김우영 양현준

세례식 신청 마감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 : 8월 7일(주)
문답총정리 : 8월 14일(주) 1,2부 예배 후 607호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이 8월 7일(주)에 있을 예정이다.

또한 문답총정리는 8월 14일(주) 1, 2부 예배 후

607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란다. 문답은 8월 14일(주일) 오후 1시 50분 602호에서 있다.

*기타 궁금사항은(607호 세례교육부)로 문의바람

제2차 국내전도 은혜중에 마쳐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최광성 장로)가 주관하고 청년 1, 2부와 70인전도대 축호전도팀이 협력하여 충북 청주시 오송제일교회에서 진행된 어린이 사역과 전도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특별히 70인 전도대 축호전도팀은 청년들과 함께 교회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70여명이 결신하고 주일에 성인 20명, 어린이 25명이 교회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중은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II)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는가?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면 스스로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이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내 몸과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고 있으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 위하여 내 욕심은 부인하고 주님께 자기를 드리기 위해 희생함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살리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내 것이 되도록 하려면, 십자가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 신뢰, 자기 교만, 안일주의, 편리주의, 정욕과 싸워 이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참사랑을 하려면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한다. 예수를 믿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 사랑하기 위하여는 먼저 죄를 미워해야 할 것이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 곧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 삶의 철학을 가진 이가 있다면 그는 십자가를 버린 사람이다.

십자가는 아픔이다. 살기 위하여 죽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지불해야 한다. 죽어야 할 시간에 죽지 못하거나,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는 진정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버려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 원수는 자기 집안에 있는 법이다. 이 말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다.

십자가는 죽음이다. 사람들은 희생을 하면서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보상이 아닌 죽음이다. 보상을 묻지 않는 희생, 그것을 절대



세례교육부 봉사자 모집

세례교육부에서는 세례식 사진촬영을 위해 성심으로 봉사할 재능을 가진 일꾼을 찾고 있다.

사진의 취미가 있거나 재능이 있는 성도로 봉사를 통해 평생 한번밖에 없는 소중한 세례식 의식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같이 하기를 소원한다.

신청은 아래 연락처나 주일 1부예배 이후부터 3부예배 전까지 607호실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다.

* 세례교육부 임승한 집사 010-7743-3223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차금지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일날 주차하는 성도들 때문에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란다.

B.M.W. 운동

Bus Metro Walking

순종, 절대 충성, 절대 사랑이라고 한다.

살려고 하니 문제가 많은 것이다. 죽자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죽을 마음으로 못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죽으면 산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불가피한 길도 아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다. 순간적인 죽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죽을 각오로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롬 1:5).

죽으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 '죽으면 살리라'는 삶의 원리를 진리 안에서 체득하므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성도들이 되자.

(다음 주 계속)

청년부 수련회 초대합니다

청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종범 집사 (청년 2부 회장)

8/4(목)~6(토)까지 진행되는 청년 1,2부 여름 수련회는 지난 겨울 수련회에 이어 『청년,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땅에 오셨고 흔들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훈탁한 세대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청년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라며, 초청받은 은혜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수많은 고민이 기도 속에 녹아들고, 우리 마음에 강력한 말씀의 빛이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삶에서 이루어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충만히 얻고 돌아올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길 기도하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위성도 (청년 1부 다윗궁동체 회장)

고성으로의 1차 전도수련회, 오송으로의 2차 전도수련회에 이어 8월 4일부터 6일까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1차, 2차 전도수련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역을 행하였다면, 청년부 수련회에서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 청년 개인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탄이 득세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시고 후원 베풀어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편지왔어요

복음을 위해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 김준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드렸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께서 이번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가족 4명, 이사 오기로 된 2명,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오겠다고 하셨던 분 2명, 학생 1명 아동 1명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역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지역을 돌보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며 돌보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복음을 위해 맡기신 주의 일 담당하겠습니다.

고성에서
목사 김준기 올림

비전2020운동본부(본부장 최광성 장로) 주관으로 해병대 신병들에 대한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이 7월 23일(토) 오후 2시에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교회에서 거행되었다.



2016 2차 국내전도 - 오송제일교회

하나님의 '거룩'으로 구별될 오송을 기대하며



주은빈 성도
(청년 1부)

뜨거운 여름, 고성에 이어 청년부 국내전도 수련회 사역지인 청주 오송제일교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KTX 오송역 주변의 원룸촌에 자리한 오송제일교회(김운호 목사)는 원룸 건물 1층에 자리한 깨끗한 분위기의 아담한 교회입니다. 초등부, 중등부로 나뉜 어린이 사역팀, 노방전도팀, 식당 봉사팀으로 구성된 청년부 30명은 두 달 전부터 서준권, 정대은, 장재원 목사의 지도 아래에 각자 맡은 사역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첫날, 주변 아파트 단지과 학교 주변을 돌며 어린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정대은 목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손수 만드신 풍선아트로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둘째날, 70인 전도대가 합류한 전도팀은 인근 아파트 축화와, 5개의 노인정에서 어른 20명, 어린이 20명의 알곡을 수확하며 사랑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2명이 간신히 설 수 있는 부역에서 서준권 목사님이 세프로 활약하시는 매 식사는 꿀맛입니다. '거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성경학교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온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활기찬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사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유희던 교회가 어린이들의 찬양과 웃음소리로 채워집니다. 노인정전도 지원, 어린이예배설교, 아침 큐티 등 전체일정을 담당해주신 장재원 목사님과 함께 오송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오송을 변화시켜 가길 소원하며 나머지 일정을 마쳤습니

다. 매년 여름마다 열리는 국내전도에 참여하면서, 항상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망설이며 참석하게 되지만 사역동안, 그리고 사역 후에는 더 가까워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청년부가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동안 이리저리한 일들로 안이해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며,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도가 아니었다면 와보지 않았을 지역에서 청년부가 쓰임 받고 저희 또한 은혜,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광주, 고성, 오송으로 뻗어나가는 청년부 국내전도 사역이 매년 지경을 더 넓혀가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동정

- 특남 : 12교구 김영진 집사 안미영 집사 가정 7월 20일 셋째 출산
- 주일식당봉사 : 이사선교회 (7.31)
엘리아선교회 (8.7)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 옥수수 제공 : 제3사단

지난 7월 22일(금)~23일(토)에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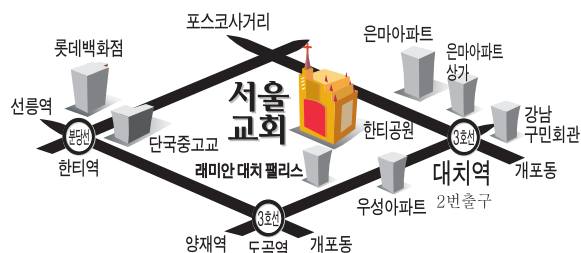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8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 계속 될 청년1,2부 여름수련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2. 충북 청주시 오송제일교회를 통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영적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